

# 인권교육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시콘텐츠 현황과 특성\*

남 영 주\*\*

## I. 서론

지난 2015년 12월 28일 韓日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韓日 정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다루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이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제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관련 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많은 기록물을 생산했는데, 이 자료들은 위안부를 증언하는 역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인식한 국가 기록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으며,<sup>1)</sup> 한국과 중국의 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다루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없다. 위안부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부분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생산 또는 수집되어 보존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과거사청산위원회가 명문화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에 반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관리 기관은 사립박물관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규정의 적용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록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sup>2)</sup>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 투고일자 : 2017.6.5. 심사일자 : 2017.6.20. 게재확정일자 : 2017.6.23.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1)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7.do\(2017.01.31\)](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7.do(2017.01.31))

2)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와 서연수 외(2016), 「일본군 ‘위안부’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역사관(나눔의 집),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 민족과 여성 역사관(사)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이하 부산 정대협) 등이다.

위 기관들은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인권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시콘텐츠 현황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기록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에 관한 연구로는 기관에 대한 연구가 있다. ‘기념의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위안부 재현문제와 그 의미에 관해 논의하였다. 독립기념관과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위안부 재현 방식과 내용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재현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sup>3)</sup>, 여문환은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공식기억에 저항하는 대항기억의 공간으로서 탈 민족적 기억을 생산한다고 하였다.<sup>4)</sup> 정현백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대중 기억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분석하였고,<sup>5)</sup> 박정애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전시 콘텐츠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위안부 및 전시 성폭력 피해여성의 모습을 분석하여 이 박물관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기억의 정치를 점검하였다.<sup>6)</sup>

위안부 기록물 관련하여 朴惠恰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사를 통해 소장 기록물의 수량과 매체별 분류정보를 정리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방안을 제시하였다.<sup>7)</sup> 또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관련하여 광현규는 역사관의 기록물 수집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수집정책에 대해 제안하였고<sup>8)</sup>, 윤성진은 역사관이 개관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sup>9)</sup> 또한 사) 시민모임의 각종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위안부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

---

관련 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pp.103~104, <표 1>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관 유형을 참조할 수 있다.

3) 김은경(2010),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한국학연구』 35.

4) 여문환(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

5) 정현백(2010),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기억과 기념-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자료집: 식민주의와 식민책임』, 전국역사학대회조직위원회.

6) 박정애(2014),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담다-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역사비평』 106.

7) 朴惠恰(2009),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기록의 관리-정리·활용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情報·記錄管理學科 석사학위논문.

8) 광현규(2014),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수집과정 분석-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9) 윤성진(2015), 「일본군 ‘위안부’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과 사회적 기억의 확장」,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서연수 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민간기관의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시콘텐츠에 대해 분석한 후, ‘위안부 기록물의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전시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나아가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전시콘텐츠를 확인한다.

본고는 그 동안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이다. 기관이 재현하고 있는 전시콘텐츠에 대한 분석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피해 할머니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여성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위안부 기록물은 주류의 기억과 역사에서 배제되어온 주제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위안부 기록물의 중요성과 기록 관리의 필요성, 나아가 지속 가능한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운영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I. 전시콘텐츠 현황 분석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관리기관은 위안부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이다. 대부분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가 출처에 상관없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위안부 박물관은 기관의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기록물 수집보다는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후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의 증거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과 일반적인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이 재현하고 있는 위

10) 서연수 외(2016),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안부 전시 콘텐츠들은 향후 위안부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시콘텐츠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

나눔의 집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군 성 노예제를 주제로 세계 최초로 세워진 역사관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일본에 의하여 자행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1998년 8월에 개관하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이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하며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이다. 역사관에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당한 한국과 해외 각국의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들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증언으로 재현된 일본군 위안소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일본군 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많은 그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소장 기록물에 대한 기관 차원의 목록화 작업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이 역사관의 기록물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주제별로 기록물 보유 현황과 구체적인 기록물 유형 및 수량을 조사)<sup>12)</sup>, 주제별로는 해외 증언 활동, 국내 증언 활동, 일제 강점기(위안부 관련 기록물), 할머니 유품, 국제단체(위안부에 대해 조사 발표한 국제단체의 기록물), 위안부 소재 매체, 서적, 할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특별행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의 기록물 전시 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11) 한수연(2005), 「기록물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12) 林惠恰(2009),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기록의 관리-정리-활용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情報·記錄管理學科 석사학위논문, pp.41~46.

<표-1>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의 전시 콘텐츠 현황<sup>13)</sup>

공간	대주제	소주제: 전시내용
제1전시	역사의 장	- 영상실: 군 위안부 동원 당시 시대상을 설명하는 영상
제2전시	체험의 장	- 군'위안부' 동원: 그림 묘사
		- 위안부 모형: 실물 모형
		- 위안부 사진 및 유물: 사진 패널
		- 위안소 생활: 장면 묘사
제3전시	기록의 장	- 광복의 기쁨과 슬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갈등과 고민
		- 원혼을 위한 터: '분향과 추념의 장'
		- 군'위안부'운동의 발아와 전개: 관련 단체의 연구 활동 소개
		- 군'위안부'의 증언: 실명을 공개한 할머니들의 편화작품 소개
		- 정기 수요시위
제4전시	고발의 장	- 역사적 기록물: 일본의 만행 기록 등
		- 할머니들의 그림 작품 전시
		- 원한에 묻힌 내 삶의 기록: 할머니들의 유품, 자필 원고 등
제5전시	추모의 장	-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삶과 증언 영상물
		- 핸드 프린트: 할머니들의 손을 찍은 패널 전시
		- 참여 서명대
연구 자료실		- 기념물 판매대
		-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위 <표-1>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각 전시실의 주제에 따라 소장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영상과 실물 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활용하고 있다. <제1전시-역사의 장>은 일본군 '위안부'의 시대적 상황과 성립 배경, 그리고 현재까지 이 문제의 전체적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전시-체험의 장>은 피해자 증언에 의해 만들어진 위안소 모형으로 이루어졌다. 위안소에는 피해자의 방이 재현되어 있고 그곳에서 쓰인 물건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한 화면으로 만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은 당시 그들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 <제3전시-기록의 장>에서는 김학순 할머니의 1991년도 증언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 성노예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에 외치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증언하는 여러 나라의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제4전시-고발의 장>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무관심, 부인 사실, 국제사회의 일본군 성

13)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2002),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p.13, 사이버 역사관 <http://cyber5.nanum.org/vr.html> (2017.02.0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노예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피해자들의 다양한 법적 대응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다. <제5전시-추모의 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얼굴을 표현한 핑거프린트 그림과 기부자 명단 등이다.

## 2.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이다.

1990년 정대협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1994년 사료관 건립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후 1999년 서대문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교육관을 만들어 미래세대와 할머니들의 손잡음이 시작되었다. 2004년 정대협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이 박물관은 자유로운 동선으로 관람할 수 있지만, 박물관 측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하→2층→1층으로 관람할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콘텐츠 현황을 아래와 정리하였다.

<표-2>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전시콘텐츠 현황<sup>14)</sup>

위치	전시공간명	전시내용
B1	맞이방 - 여정의 시작	- 피해자의 일생이 담긴 티켓을 구입, 한분의 할머니와 인연 맺기 - 폭력과 차별의 벽을 뚫고 나비가 자유로이 날갯짓하는 인터랙션 영상 경험
	쇄석길 - 역사속으로	-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전쟁과 고통의 시기로 들어서기 - 양쪽 벽면의 작품과 피해자들의 그림을 따라 어두운 지하로 향하기
	지하전시관 - 그녀의 일생	- 티켓으로 인연을 맺은 피해자를 영상으로 만나기
	계단전시 - 호소의 벽	- 피해자들이 절규하는 고통의 목소리가 사진과 함께 계단을 따라 벽 곳곳에서 메아리 침 - 밝은 공간으로 나아갈수록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자신과 같은 일을

14) [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general/general.asp?page\\_str\\_menu=0201\(2017.04.01\)](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general/general.asp?page_str_menu=0201(2017.04.01))

인권교육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시콘텐츠 현황과 특성 \_

		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는 호소와 함께 희망의 목소리로 변해감
2F	역사관 (전쟁이 낳고 키운 기형적 제도-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문서와 관련 자료의 전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힘 -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범죄로서의 ' 위안부' 제도의 실체를 전시 -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고통과 전후 상황 등 전시
	운동사관 (History를 Herstory로 바꾼 그녀들의 목소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발자취 - 전시물과 영상을 통해 법정투쟁, 국제 활동 등 - 수요시위
	생애관 1	- 연행 시기와 지역 등 피해 기록이 소개된 패널 - 피해자들의 손때 묻은 물건과 유품 전시 -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사진, 신문기사 등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기 록 전시
	기부자의벽	- 후원자 명단
	생애관 2	- 2015년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공간 - 해방 후 이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굴곡진 삶을 한국 현대사와 함께 조명
	추모관	-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얼굴과 사망날짜 - 추모, 헌화, 추모금 기부
1F	1층 상설관 (세계분쟁과 여성폭력)	- 오늘날 전쟁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세계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양 한 사례와 사진을 통해 전시
	기획전시관 1	- 전쟁과 여성인권, 평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공간
	기획전시관 2	- 광복 70년 특별전으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아픔을 소개
	참여+약속의 공간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전시 중 여성폭력 종단을 위한 관람객 들의 참여 의지와 약속을 직접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공간
	뮤지엄숍 & 인포 센터	-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을 비롯한 관련 자료와 영상물, 기념품을 구입 - 박물관 관람을 돕는 안내데스크 - 평화와 인권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
	자료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해외 전시 여성 피해 사례와 평 화, 인권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
	박물관 뜰 (휴식과 답소)	- 휴식,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 - 작은 공연 등 문화마당을 위한 무대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위와 같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규모나 전시콘텐츠는 소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현재의 상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안부’ 및 전쟁과 여성인권의 역사를 써 나가서 세계평화와 여성인권에 관한 모든 것(박물관)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기관의 염원과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나아가 문제 해결을 통하여 평화와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하는 역사관’이다.

1997년 발족한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그 동안의 활동을 밑거름으로 하여 2009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010년, 故 김순악 할머니께서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아 달라”라는 유언과 함께 5천여만 원을 기탁하였고, 다른 할머니들도 뜻을 함께 하여 역사관 건립을 위한 씨앗기금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시민모임은 역사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범국민 모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지역의 예술가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동참하였는데, 특히 2012년 런칭한 사)시민모임의 브랜드 ‘희움’(희망을 모아 꽃 피움)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역사관 건립에 동참하였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처럼 사)시민모임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인해 역사관 건립이 추진되었고,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도 지원에 동참하여 2015년 12월 5일,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개관하였다.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모체인 사)시민모임의 소장 자료들은 2014년 목록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총 1931건으로 단행본 328건, 문서 852건, 연속간행물 89건, 녹음·영상자료 1건, 박물관 644건, 광병원 문서 15건, 광병원 박물관 2건이며, 그 외 약 200여건의 구술 인터뷰 자료가 DVD로 관리되고 있다.<sup>15)</sup> 소장 자료 중에는 박물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품은 피해자의 사망 후 그들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작품은 전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2014년 사)

15) 광현규(2014),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수집과정 분석-대구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p.64.



시민모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940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되었다.<sup>16)</sup> 세부 유형으로는 증언기록, 간병일지, 활동보고서 등 문서류 70점, 할머니 피해증언, 행사·기자회견 등 녹음·영상기록 208점, 할머니 유품, 원예치료 결과물인 압화작품 등 박물관 662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했던 광병원의 진료차트 등이 위안부 기록물에 포함된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사)시민모임의 소장 기록물을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전시콘텐츠 현황<sup>17)</sup>

	전시 공간	전시 내용
1층	전시실 1	-1990년~2015년 우리나라 위안부 운동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제도 설명 -위안부 6인의 증언(HD 비디오)
	벙커	-기획 전시 공간
2층	갤러리 평화(계단)	-故 김악순, 故 심달연 할머니의 원예 압화 작품 전시
	전시실 2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기획전시 공간 : 한. 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평화이야기
	교육관	-대구·경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과 유품 전시
	공간 희움	-다양한 야외 행사와 공연 개최
	복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연혁과 활동 소개 -시청각 자료 상영
	수장고	-기록물 보관

위 역사관은 우리나라 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사)시민모임의 역사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전시 기록물들은 대구·경북지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역사관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민족과 여성 역사관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은 1990년 윤정옥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를 연재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부산

16)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기록물(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현황, 참조.

17) 2017년 1월 25일 역사관 방문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존재하지만 기록물 정보가 없다. <http://www.hecumuseum.com/> (2017.02.06)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여성의 전화'의 운영위원장이었던 김문숙씨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오늘날 역사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이다. 이후 김문숙씨는 1991년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 부산 정대협을 분리하고, '정신대 전화'를 개통하는 등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위안부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8)</sup> 특히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시모노세키 재판을 주도하였고, 2004년에는 역사관의 이사장을 맡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韓日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려는 활동을 전개하며, 나아가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주제의 시민 및 청소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모임의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이 관련 단체들의 협력으로 건립·운영되는데 비해, 본 역사관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하여 건립부터 운영까지 김문숙 이사장이 감당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90세 고령의 김 이사장은 향후 역사관의 존폐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부산 역시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 된 7명 중 이막달 할머니(94세)만이 생존해 있기에, 피해 할머니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어떠한 활동으로 역사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역사관의 전시 콘텐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4>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전시콘텐츠 현황<sup>19)</sup>

위치	주제	전시내용
1관	각종 자료집 및 기증 도서	- '정신대 자료집' (1991.8.15~ ) -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관련 자료집 - '독도는 우리땅' : 영유권 관련 자료집 - 정신대 사진집 - 기증 도서 - 각 종 신문 스크랩(위안부, 교과서 문제 등)

18) 김문숙 편저(1997), 『일본에의 경고-전범들의 위험한 침략주의를 경고한다』, 신안출판사: 59~80, 부록 '위안부 문제 일본 그리고 한국' 에서 1990년~1997년까지 위안부 관련 활동을 시간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산 정대협의 활동과 본 역사관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 2016년 12월 30일 역사관 방문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방문시 이사장님의 설명으로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역사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자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역사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영상자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역사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와 김문숙 이사장의 인터뷰 3건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womenandwarbusan.com/003/sub03\\_03.php](http://www.womenandwarbusan.com/003/sub03_03.php)(2017.02.03)

인권교육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시콘텐츠 현황과 특성 \_

	①주제 전시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 '일본군 위안부'들의 피와 눈물이 남아 있는 일본군 위안소의 흔적들”	- 위안소 사진 - 위안소 위치 지도 - 위안부 사진
	②주제 전시 “위안부 문제의 제기 1990년 윤정옥 교수의 '정신대 발자취를 찾아서'”	- 사진 자료 - 부산 '정신대 전화'에 신고한 할머니들의 사진 - 위안부 피해 사례와 관련된 신문기사
	③주제 전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시모노세키재판”	- 재판 관련 사진자료
	④주제 전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국민기금 반대'”	- 관련 사진자료
	위안부 사실 증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 결과 보고서 (방위청 관계) - 징병 한국인의 정신대 증언(오키나와 포로 수용소) - 미국 포로 장갑선씨의 정신대 증언 명단 공개
	위안부 피해자 소개	- 박두리, 하순녀, 이귀분, 김학순 할머니 사진 - 동티모르의 위안부 및 출생 자녀들의 사진
	해결을 위한 할머니들의 노력	- 수요 집회 사진 - 광복 50주년을 맞아 사과와 배상을 위한 도쿄집회
2관	특별전	- “위안부 100인의 증언(사진전)” - “시모노세키(관부) 재판의 기록”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	- 성적 노예, 민족 차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인의 노력	-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의 사과 -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제기, 증언한 일본 여성 '시로타 스즈코' 소개 -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일본지방의회 첫 청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외(국제) 활동 소개	- 미하원 위안부 결의안 -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의 위안부 결의안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 보고서, 최초 작성한 '쿠마라스와리' 보고서
	위안부 학살 기록	- 신문기사
	김문숙 이사장의 활동	- 신문기사
	독도 관련	- 신문기사
	상하이 임시정부 사진 등	- 사진 자료
3관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품	- 그림
	참여 활동의 결과물	- '소녀상' 캠페인: 희망의 메시지 - 역사관 방문 후 소감문 작성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본 역사관은 1관과 3관을 상설전시 공간으로 2관은 특별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관의 주요 전시 자료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록물은 '정신대 자료집'이다.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협의회 결성 때부터 최근까지 정대협 및 각 종 위안부 단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각 종 자료 및 보도 자료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27권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관은 이 자료가 우리나라 정신대 운동의 역사를 망라한 것으로 '한국정신대 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기록물이라고 소개하였다.<sup>20)</sup>

또한 4개의 '주제전시'가 있다. ①주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위안소 및 위안부들의 사진과 위안소 지도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위안부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리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②주제는 우리나라 정신대 운동의 역사이다. 1990년 윤정옥 교수로부터 시작된 정신대 운동의 역사를 사진 자료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는 부산 '정신대 전화'에 신고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전시하고 있어서 본 역사관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기도 한다. ③④주제와 관련해서는 '시모노세키 재판'과 '국민기금 반대'에 관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시모노세키 재판'은 김문숙 이사장의 주도로 부산의 일본군'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원 10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부에 보상 청구 소송을 제소한 것이다. 1992년 12월 25일부터 1998년 4월 27일 판결까지 6년 동안 23회의 재판을 통해 일본정부는 '위안부 배상 책임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재판은 일본 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기금 반대' 운동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도쿄 등 각지에서 실시된 반대운동에 (사)부산 정대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두 사업은 역사관이 가장 역점을 두어 실시한 활동이었다. 특히 '시모노세키 재판'은 역사관의 활동 중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활동이었으며, 위안부 운동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 외 위안부 관련 증언 및 피해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피해 기록물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여성들의 피해였음을 보여주고자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2관은 특별전시 공간과 참여 공간이다. 현재는 그간 개최된 특별전시 중 "위안부 100인의 증언(사진전)"과 "시모노세키(관부) 재판의 기록"과 관련된 기록물의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과 독도 문제 및 역사교육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2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 1990년 한국정신대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될 때 김문숙 이사장은 당시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피해자들의 신고전화 상담 및 정신대 문제의 여론화에 앞장서고 있었는데(1991.10.29. (화) 부산일보 24면 기사), 정대협에는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양한 역사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 강사 양성교육 및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기록물로 전시공간이 구성되었다. 그간 실시된 역사교육 관련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임시정부 대장정 순례단'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역사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교육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관은 할머니들의 그림전시관(상설전시)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 작품과 역사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희망 나비에 작성한 메시지들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sup>21)</sup> 대표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소녀상 건립을 위한 캠페인 등이 있다.

<표-4>와 같이 역사관은 활동 결과 생산 및 수집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내용상 몇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전시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피해 및 가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장 많다. 둘째, 독도 문제 등 역사교육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셋째,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그 결과물이다. 이러한 전시 기록물들은 본 역사관의 활동 목표 중 ①할머니들의 자존심 회복과 민족적 사랑, ③민족의 역사 바로알기 교육, ②청소년 역사교육과 여성 인권교육에 해당된다.

그 외 역사관의 활동 목표에 해당되는 전시는 패널에서는 역사관의 활동 상황을 명기하고 있지만<sup>22)</sup> 관련 기록물의 전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분류와 정확한 수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장고가 없어서 전시가 끝난 기록물을 보관하지 못한 채 겹겹이 쌓아두고 있으며, 일부 기증 도서 및 출판물은 공간 협소로 인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전시 기록물의 출처와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아쉽다.

### III. 전시콘텐츠 특성

아직까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

21) 치노 가오리(2002),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부터 당신에게」, 나눔의집역사관후원회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pp.169~171,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나눔의 집)은 관람객들이 지장으로 생존자의 초상화를 완성하고 돌길을 만드는 것들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데, 이를 '행위 수행'에 의한 전시라고 하였다.

22) '④국제연대활동-「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회의」를 통한 일본정부와의 투쟁'은 역사관이 2005년 9월 22일~9월 25일 평양대회와 2006년 8월 25일~8월 29일 마닐라 대회에 참가하였고, '⑦세계의 평화운동연대'는 2008년 5월 3일~5월 6일 「9조 세계회의」에 참석하였다.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려진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①범죄 행위, ②피해 사실, ③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3)</sup> ②피해 사실로는 위안부의 존재와 실체를 드러내는 증거적 기록과 피해자의 활동과 증언, 일상 유품(피해자의 작품, 여권 등) 등, ③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는 위안부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활동을 드러내는 기록(수요 집회 등) 등이 있다. 피해자 및 위안부 관련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현재 활동의 역사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①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록물 중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는 '누가, 어떻게 범죄를 주도했는지'라는 부분이 빠져 있으며, 일본 자료에 이 내용이 많다고 하였다.<sup>24)</sup> 앞으로 일본이 소장하고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위안부 기록물은 성격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이 재현하고 있는 전시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의 전시콘텐츠 성격은 아래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 전시콘텐츠의 성격

기록물 성격	해당 위안부 기록물
범죄행위	제3전시-역사적 기록물
피해사실	제2전시-위안부 사진 및 유물, 제3전시-군'위안부'의 증언, 제4전시-할머니들의 그림 작품, 원한에 묻힌 내 삶의 기록,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해결을 위한 노력	제3전시-정기 수요시위

<표-5>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전시 기록물은 대부분 피해사실과 관련이

23) 광현규(2014),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수집과정 분석-대구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중심으로-」, p.3; 林惠恰(2009),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기록의 관리-정리·활용을 중심으로-」, pp.39-40;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는 2014년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표를 통해 언급하였다. <http://blog.daum.net/moge-family/7761>(2017. 02. 06)

24) 남상구의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2014년 7월 18일)의 발표 내용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tomorrow&logNo=220066719629> (2017.02.06)

있다. 이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또한 거주했던) 할머니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증거적 의의를 갖는다.

## 2.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재현하고 있는 전시콘텐츠 성격은 아래 <표-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6>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전시콘텐츠의 성격

기록물 성격	해당 위안부 기록물
범죄행위	2F-역사관(전쟁이 낳고 키운 기형적 제도-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2F-생애관 1
해결을 위한 노력	2F-운동사관(History를 Herstory로 바꾼 그녀들의 목소리)

위와 같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다양한 성격의 기록물을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수요집회에 관련된 전시콘텐츠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200회가 넘게 개최되고 있는 수요집회는 우리나라 위안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향후 위안부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이 기관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 3. 회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회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전시콘텐츠 성격은 아래 <표-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7> 회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전시콘텐츠의 성격

기록물 성격	해당 위안부 기록물
범죄행위	전시하지 않음
피해사실	전시실 1-위안부 6인의 증언, 캘러리 평화-할머니들의 원예 압화 작품, 교육관-대구·경북지역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과 유품 전시
해결을 위한 노력	전시실 2-한·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평화이야기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위 역사관 또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이 주목할 만한데, (사)시민모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동안 일본의 여러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교류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본 역사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와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설립 목표이며, 이 활동은 설립 목표에 부합한다. 본 역사관은 향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고 할머니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 韓日간 또는 우리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화두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과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은 피해사실 중심의 기록물을 소장·전시하고 있는데 비해 역사관은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 4. 민족과 여성 역사관

역사관이 재현하고 있는 위안부 기억은 어떠한 성격의 기록물인지 아래 <표-8>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8> 민족과 여성 역사관 전시콘텐츠의 성격<sup>25)</sup>

기록물 성격	해당 위안부 기록물
범죄행위	2관-위안부 학살 기록
피해사실	1관-①②주제 전시, 2관-위안부 할머니들의 작품, “위안부 100인의 증언 (사진전)”
해결을 위한 노력	1관-③④주제전시, 위안부 사실 증언, 해결을 위한 할머니들의 노력(수요집회, 사과와 배상을 위한 도쿄 집회), 2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인의 노력,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외(국제) 활동 소개

역사관은 세 가지 성격의 위안부 기록물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피해사실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범죄행위(가해사실)와 관련된 기록물은 경향신문(2016년 11월 7일, 21면)의 <“일본군, 조선인 여성 30명 총살” 위안부 학살 기록원본 찾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범죄행위와 관련된 원본 기록물은 아니지만 이 기록물을 통해

25) 위안부 기록물의 성격 구분은 기록물의 성격이 명확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 자료집, 사진집, 스크랩 등은 하나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없어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원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에 위안부 기록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역사관은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이 많다. 시모노세키 재판과 국민기금 반대는 역사관의 활동 결과 생산된 기록물이기에 다른 수집 기록물에 비해 역사관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숙 이사장은 역사관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며, 이를 위해 역사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6)</sup> 역사관은 시모노세키 재판에 참여한 2명의 위안부 할머니와 2명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증언 기록과 재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부 재판의 기록』(민족과 여성 역사관, 서지사항 없음)으로 출판하였는데, 이 자료는 향후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사망한 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역사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일본이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내의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피해와 관련된 증언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에 증거적 가치가 높다.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는 역사기록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sup>27)</sup> 또한 위안부 기록물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군사동원 및 식민지 시대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나아가 위안부 기록물은 인권기록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전쟁 중 국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여성에 대한 폭력과 피해사실은 단순히 전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은 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아픔의 기억과 사실에 끊임없이 관계하는 활동과 공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전시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에는 '피해사실' 성격의 전시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한 전시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기록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이 기록물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와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지만,

26)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과 성격을 같이한다고 하였다.(2016.12.20. 방문시 인터뷰 내용)

27) 윤명숙(200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얻는 역사적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제4호, p.71.

##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1호

전시 상황에서 유린된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증언기록 외에도 당시 전쟁 및 군대가 설치한 ‘위안소’, 특히 피해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활동으로 시작된 그림 작품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수요집회 관련 전시콘텐츠도 인권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전하는 생생한 증언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민족과 여성역사관의 대표적인 전시콘텐츠인 시모노세키 재판 기록물과 위안부 관련 각종 UN보고서도 일본 및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전시 중 일어난 인권 유린 상황을 고발한 기록물이다. 국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뿐 아니라, 국외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활용도 인권교육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역사적 증거로서의 가치와 학술·연구 및 과거사 청산, 나아가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인정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민족과 여성역사관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나눔의 집 역사관은 현재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마련된 역사관이라는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발의 장”의 경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또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그림 작품과 자필 원고, 유품, 증언 등을 전시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 기록물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시콘텐츠는 전시에 자행된 여성 인권유린 문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수요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와 관련된 전시 콘텐츠에 주목할 만했다. 현재 200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활동이 지금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인권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위안부 역사관이다. 전시 콘텐츠도 지역의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콘텐츠는 지역민

들에게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인권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사업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 역사관이다. 이 역사관은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보상 판결을 이끌어낸 시모노세키 재판을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역사관은 ‘해결을 위한 노력’의 성격을 내포한 기록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전시콘텐츠에 주목할 만하다. 본 역사관의 전시콘텐츠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향후 전시 인권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확대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노력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루 빨리 소장 기록물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기록물 목록·DB가 작성되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물적·인적 지원과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현규(2014),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수집과정 분석-대구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김문숙 편저(1997), 『일본에의 경고-전범들의 위험한 침략주의를 경고한다』, 신안출판사
- 김은경(2010),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한국학연구』 35
- 박정애(2014),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담다-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역사비평』 106
- 朴惠恰(2009),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기록의 관리-정리·활용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情報·記錄管理學科
- 여문환(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주)
- 요시미 요시아키, 남상구 옮김(2013), 『일본군'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 윤명숙(200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얻는 역사적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제4호
- 윤성진(2015), 「일본군 '위안부'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과 사회적 기억의 확장」,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정현백(2010),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기억과 기념-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자료집: 식민주의와 식민책임』, 전국역사학대회조직위원회
- 치노 가오리(2002),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부터 당신에게」, 나눔의집역사관후원회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 한수연(2005), 「기록물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한홍구(2009), 「'피해자'와 '역사'가 공존하는 곳-나눔의 집」, 『중등우리교육』, 제230호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민족과 여성 역사관 <http://www.womenandwarbusan.com/main/main.php>
-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나눔의 집) <http://cyber5.nanum.org/vr.html>
-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main/main.asp>
-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http://www.heummuseum.com>